

수능성적, 고교별 최대 85점 차이

최근 5년 수능·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큰 차이 없어 도시 크고 학원 많은 지역 점수 높아

전국 고교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난 5년간 영역별 평균 성적이 최대 85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학교, 지역 간 성적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도시 규모가 크고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부모의 재력보다는 학력이 좋을수록 성적이 좋았고 외고생들의 성적은 계속 상승세인 반면 과학고생들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서울 삼성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과부가 수능성적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교과부는 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최근 5년(2005~2009학년도)의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중 전국 시군구별 수능성적 분석을 보면 전국 고교별 5년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외국어, 수리(나형) 등 주요 영역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6.5점인데 반해 가장 높은 학교는 132점으로 85.5점 차가 났고 외국어는 75.6점, 수리는 79점의 차이가 있었다.

언어는 시군구별 평균에서도 골짜



가 55.7점, 1등은 113.9점으로 60점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외국어도 55.9점, 수리는 48.2점에 달했다.

수험생 개인의 성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20~32.1%로 집계됐으며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9,865점(언어)에서 27,421점(수리) 더 높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았다.

도시 규모를 따졌을 때 읍면지역은 도시보다 영역별로 7.709점에서 9.653점 낮았으며 학원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점수가 3.2~4.0점 높았다.

수능 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외고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고는 2005학

년도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수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 자사고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성적 하락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교육은 수리영역에서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에 따르면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중 어디에서 수능 상위등급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추정한 결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언어는 오히려 평준화지역에서 상위 등급에 속할 확률이 20~40% 높았다는 것이다.

사교육비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차이를 보였는데 수학의 경우만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 과외비가 높을수록 수리영역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았다.

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등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희종기자 chae@연합뉴스



녹색성장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 대한주부클럽 전남도지회 회원들이 9일 보성 다비지콘도에서 부산지회 회원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녹색성장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행사'를 갖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공직자 부패척결 노력 성과” “평가 제대로 안돼 수공 못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 지자체·공공기관 반응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최상위권으로 분류된 광주시와 장흥군 등은 ‘환영 일색’인 반면, 최하위권에 머문 안동군과 강진군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편으로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종합 청렴도에서 9.4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한 광주시는 청렴도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박광태 광주시장이 민선 4기 취임 이후 공직자로서 청렴의지를 강조해왔고, 청렴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광주시가 받은 청렴도 점수는 16개 시·도 중 역대 청렴도 측정 결과 최고 점수”라며 “청렴도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패척결 및 공직윤리의식 확립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청렴 행정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위에서 7단계나 뛰어 오른 전남도도 권익위 평가 결과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전 직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부패발생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 환경을 조성한 결과”라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열린 도정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한 장흥군은 공무원 비리 등 부패방지 신고창구 운영, 반부패대책 추진기획단 운영 등 꾸준히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지난해 끝에서 무려 9계단 상승해 7위를 기록한 광주시 교육청은 “이제야 ‘명예’를 벗게 됐다”며 크게 반겼다. 시 교육청은 광역시 교육청만을 따질 경우 2위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한 맞춤형 청렴교육과 근본적인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하위권에 머문 강진군 등은 권익위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진군 기획실 관계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다산강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온 노

력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외부 청렴도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질문의 방법 등으로 인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청렴도 조사방법을 민원인이 시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동군청 기획실 관계자는 “지난 6월 자체적으로 한국 경찰에 의해 권익위 조사방식과 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받은 점수 7.31점 보다 높은 8.96점이 나왔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렬 조사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해 전직원들이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동 군청 직원들도 “올들어 직원의 청렴도 향상교육을 끊임없이 실시한다. 수차례 진행한 감사에서도 직원들의 비리가 눈에 띄지 않는 등 현상적인 상황은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며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강진=남철화·원도=정은조기자

경유용 다목적 첨가제

소액 자본금 투자로 확실한 고소득 창출

시브라특성

- 순수 시브라비이오 첨가제로 유류 산소함량이 낮아 연소효율 높음
- 세정력이 높아 연소실내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아 연소효율 향상
- 연도도 권리와 비슷하다.
- 부패해출 가스 NOx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킨다.
- 연비 개선에 효과적임을 통해 단기간에 연소실내를 회복한다.

5년

광주·전남·시·군 판매점 선착순 모집 사업 동참하실분

광주시 북구 동문동 141-111 (보명 141111)
·광주전남 총 대리점 ☎ 062-523-1006
FAX 062-515-5557
H.P 010-4010-3821

KOICA, 여수박람회 위해 뚝다

(한국국제협력단)

2012년까지 1천만 달러 규모 국제개발협력 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국제조직위원회를 대신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1천만 달러 규모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이와 별도로 국제협력단 홍보대사 박정숙 씨는 세계박람회 국제홍보대사를 맡았다.

국제협력단은 9일 “정부가 2012 여수박람회 유치에 위해 개도국들에게 해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주로 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공약했고 KOICA

국들이 재원에 대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여수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치위원회는 1천만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국제협력단은 여수박람회 국제조직위가 제공하는 1천만 달러(약 100억원)를 올해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20억원씩, 2012년에는 40억원을 지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원 대상 분야는 개도국 해양 및 환경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파견, 연구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